

한경 BUSINESS



전월세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
IMF 때 돈 번 사람들의 특징
빅 데이터 시대 수혜 업체는 어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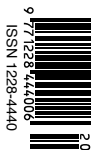
미친 임대료의 역습

‘힐링 비즈니스’가 뜬다

우주인 고산이 세운상가에 등지 뜬 까닭
400억 끌격한 ‘간 큰 패밀리’의 주가조작 수법
유동성 장세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앞날은



값 4,000원



20

브라질, 특별국가입찰법 도입

월드컵·올림픽 인프라 구축 위한 조치

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, 중남미팀장

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2년도 채 남지 않았
다.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
월드컵 이후 2년의 간격을 두고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.
양 대회의 유치를 위해 43개월간의 마라톤을 성공적으
로 마쳤던 브라질 정부가 숨 고르기를 지나치게 길게 한
때문인지 대회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, 국제공항의 건설
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. 대회
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계획했던 상파울루~리우데
자네이루 연결 고속철도 사업이 복잡한 입찰 과정 등으
로 인해 몇 년째 검토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. 심지
어 올림픽 이전인 2016년 완공을 포기하고 2019년 완
공을 목표로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.

인프라 건설의 진행이 더딘 것은 브라질의 '국가입찰
법'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 국가입찰법은 입
찰 과정이 복잡해 입찰 기간이 장기화되고 관료제적 요
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개정의
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. 국가입찰법의 문제
점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과 공항 건설을
위한 입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. 미진한 준비 상황
에 대해 조바심을 느낀 브라질 의회는 2011년 6월 입찰
절차의 표준화·신속화를 목적으로 국가 입찰에 관한
새로운 법인 '특별국가입찰법'을 통과시켰다.

특별국가입찰법은 월드컵 및 올림픽과 관련한 인프
라 건설과 그 서비스 계약의 입찰 과정에 한해 '국가입
찰법' 대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 입찰 기준 가격
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, 유찰의 위험을 막고 신속한
진행을 위해 1순위 입찰자를 결정한 후 가격 협상의 가
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, 원래의 입찰 절차를 유연하
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입찰법과 구별된다.
또한 입찰의 표준화를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에 참
여할 것을 권고하고 일정 사항에 대해 공고를 의무화하
고 있다. 특별국가입찰법이 공포된 2011년 10월 이후
공항 관련 건설 입찰 4건과 2012년 초에 마토 그로소
(Mato Grosso) 주의 경전철 건설 입찰 과정에 이 법이
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.

리우데자네이루
에 있는 갈레옹
(Galeao)공항 1번
터미널 리모델링
공사 입찰은 특별
국가입찰법이 적용
된 사례 중 하나다.
브라질 공항공사
(Infraero Aero-
portos)의 발표에
따르면 MPE 프로젝트와 RV 건설 등으로 구성된 노보
갈레옹(Novo Galeao) 컨소시엄이 유일한 입찰 참가
자였다.

한편 브라질 내에서는 인프라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
는 국가 장기 프로젝트인 '성장 가속화 프로그램
(PAC)'에도 특별국가입찰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
다. 향후 월드컵 및 올림픽과 무관한 인프라 건설 프로
젝트에 특별국가입찰법상의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도
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.

그러나 특별국가입찰법에 대해 '신속'이라는 목적을
위해 입찰 기준의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
는 비판도 있다. 입찰 기준 가격의 비밀성을 보장할 제
도적 장치가 없고 정보의 내부 유출로 특정 입찰자를
돕는다면 입찰자 간의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점 등이
그 이유다. 이 때문에 정보력이나 로비력이 강한 브라질
현지 기업들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
된다.

한국 기업으로서의 우선 신속한 입찰 절차가 진행된
다는 점에서 브라질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
명분은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. 고속철 입찰 과정에
참가했던 한국 컨소시엄이 몇 차례 입찰자 선정이 지연
되는 과정에서 결국 입찰 참가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
다. 다만 특별국가입찰법 하에서도 여전히 현지 기업에
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력한 현지 파트너
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□



정철 기자

브라질 정부는
월드컵·올림픽 관련
인프라 구축을 위해
특별국가입찰법을
도입했다. 사진은 브라질
리우데자네이루.